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17.(목) 15:00
(지 면) 2026. 9. 18.(금) 조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태풍 대응체계부터 추석 안전까지 빈틈없이 챙긴다

- 국가태풍센터·제주고산지구대기감시소 찾아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긴밀한 공조 체계 당부
- 추석 명절 대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소방·가스·전기 분야 안전관리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9월 17일(목) 제주지역을 찾아 태풍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추석 명절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태풍 예측부터 기후변화 감시까지 기상재난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명절 기간 이용객이 몰리는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가태풍센터: 태풍 예측 기술개발 현황 점검 및 기관 간 공조 당부

김광용 본부장은 먼저 국가태풍센터를 방문해 태풍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특히 태풍 진로와 강도 등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현황을 살핀 뒤, 태풍 영향이 예상될 경우 대국민 홍보 강화 및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대응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소방·가스·전기 안전 점검 및 현장 조치

이어 추석을 앞둔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찾아 제주도, 서귀포시, 시장상인회 관계자들로부터 안전관리대책을 청취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시장 내 상가를 돌며 소화전 관리 상태와 가스시설, 누전차단기 등 소방·가스·전기 분야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불량 소화기는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보급했다.

아울러, 시장 내 점포에서 추석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은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전통시장은 명절 기간 많은 사람이 찾는 만큼 작은 위험요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연휴가 끝날 때까지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제주고산지구대기감시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기 관측 정보 활용 논의

마지막으로 고산지구대기감시소를 방문해 온실가스, 에어로졸, 대기복사 등 지구대기 관측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관측장비를 점검했다.

아울러 장기간 축적된 지구대기 관측정보가 극한호우·폭염 등 기후위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 등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측, 신속한 정보공유,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가 삼박자를 이뤄야 한다”라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께서 안심하고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재난 취약요인을 사전에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신일철 (044-205-5230)
		담당자	서기관	현종일 (044-205-5234)
		담당자	사무관	전혜숙 (044-205-5231)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점검과	책임자	과 장	박범수 (044-205-4240)
		담당자	사무관	강 철 (044-205-4243)

